

친절안동 UCC•이미지 공모전 심사 총평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축제공관재단이 주관한 친절안동 UCC•이미지 공모전은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달여간 진행한 공모전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하였다는 점에서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동의 노력이란 점에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방송, 영상,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심사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출품된 전체 작품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UCC 동영상 부문(57점), 이미지 부문(48점)으로 총 105개 작품 가운데 총 19개 작품을 수상작(UCC 공모전 11작품, 이미지 공모전 8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안동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주제를 잘 구현한 친절한 이미지를 선보여 다시 찾고 싶은 안동, 머무르고 싶은 안동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주제 구현과 함께 작품성, 예술성, 연출력, 창의성, 활용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심사하였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기대 이상의 수준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어려움도 있기도 하였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수준 높은 영상미와 연출에도 불구하고 주제 구현(친절 안동)이 미비했던 작품들은 수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UCC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친절안동에 대한 주제 구현을 애니메이션 플래시로 제작하여 선명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아, 모든 심사위원들의 최고점을 받았다. 플래시 제작이 생각 외로 전문성, 시간,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미지공모전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ANDONG이라는 안동의 영문 알파벳을 패턴화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동이라는 전통이미지(고가의 기와)와 주제 구현에 대한 스마일(SMILE)의 표현을 단순화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사실상 간결하고 가독력이 있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듯이 최우수상 시상에 대한 평을 내렸다.

수상한 작품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작품으로 장애인이 출연하여 제작한 UCC 부문의 “무장애 안동여행”과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월영교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출품한 작품, 샌드(모래)아트로 표현한 UCC 작품도 이색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안동지역 참가자가 아닌 타지역 참가자가 80%이상이 접수하였다는 점에서 안동의 대외적인 인지도와 관심을 볼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공모전이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심사위원들이 봐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일부 작품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방송에 바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안동의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최근 잘 활용되고 있는 개인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를 권장한다.

심사위원장 강병규

 (사인)